

느헤미야

1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이십
 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
 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
 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
 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
 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기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부터 모아 내 이름
 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
 켜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
 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
 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
 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2

1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충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삼일에

12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

었더라

14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 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8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3

1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솔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야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8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하루압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일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14 분문은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5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총계까지 이르렀고

16 그 다음은 벰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러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중수하였고

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

르렸고
 20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이 한 부
 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3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
 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
 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
 고
 25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 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
 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
 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26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 대
 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
 니라
 28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
 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
 가 중수하였고
 30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
 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밍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
 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
 이 누에 이르렀고
 32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
 하였느니라

4

1 산발랴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흠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7 산발랴와,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15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

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 하는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면즉
 20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 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5

1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2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4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7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8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11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13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14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왕 이십년부터 삼십 이년까지 십이년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16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17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일백 오십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18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

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

1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3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 저희가 네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 11 내가 이르기를 '나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 12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 13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 14 내 하나님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 15 성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 16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 17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 19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

- 1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 2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님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자라
- 3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 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5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시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서 총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8 바로스 자손이 이천 일백 칠십 이명이요

9 스바다 자손이 삼백 칠십 이명이요

10 아라 자손이 육백 오십 이명이요

11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 팔백 십 팔 명이요

12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명이요

13 사투 자손이 일팔백 오십 명이요

14 삭개 자손이 육백 육십 명이요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 사십 팔 명이요

16 브배 자손이 육백 이십 팔 명이요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 삼백 이십 이명이요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 육십 칠 명이요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 육십 칠 명이요

20 아디 자손이 육백 오십 오 명이요

21 이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 팔 명이요

22 하숨 자손이 삼백 이십 팔 명이요

23 베새 자손이 삼백 이십 사 명이요

24 하립 자손이 일백 이십 이 명이요

25 기브온 사람이 구십 오 명이요

26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일백 팔십 팔 명이요

27 아나돗 사람이 일백 이십 팔 명이요

28 벤아스마웬 사람이 사십 이 명이요

29 기랴트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 사십 삼 명이요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 이십 일 명이요

31 믹마스 사람이 일백 이십 이 명이요

32 벤엘과 아이 사람이 일백 이십 삼 명이요

33 기타 느보 사람이 오십 이 명이요

34 기타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명이요
 35 하림 자손이 삼백 이십명이요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 사십 오명이요
 37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 이십 일명이요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 구백 삼십명이었느니라
 39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 칠십 삼명
 40 임멜 자손이 일천 오십 이명이요
 41 바수홀 자손이 일천 이백 사십 칠명이요
 42 하림 자손이 일천 십 칠명이었느니라
 43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44 칠십 사명이요
 45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일백 사십 팔명이요
 46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벨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
 47 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일백 삼십 팔
 48 명이었느니라
 49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
 50 손과
 51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
 52 과
 53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54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55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56 갓삼 자손과,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57 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58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9 바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60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61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62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
 63 리다 자손과
 64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65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
 66 몬 자손이니
 67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삼백 구십
 68 이명이었느니라

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고 함이 육백 사십 이명이요
 63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64 이 사람들이 보계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65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 칠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 오명이요
 68 말이 칠백 삼십 육이요, 노새가 이백 사십 오요
 69 약대가 사백 삼십 오요, 나귀가 육천 칠백 이십이었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일천 다릭과,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 삼십 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이백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 칠 벌을 드렸느니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8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
 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를 기울였는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
 편에 선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
 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
 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
 니 책을 펼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
 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
 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
 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
 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
 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를 '오늘
 은 성일이니 마땅히 총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
 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읽었더라
 13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
 여서
 14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 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

1 그 달 이십 사 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냐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는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 오는 자를 돌을 큰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13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14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15 저희의 주권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목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16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18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니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19 주께서 연하여 금홍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21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
 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
 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
 조에게 명하시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고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
 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
 매
 25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
 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
 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금홍을 발하시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
 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금홍을 발하시 건져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
 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

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
 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31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
 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
 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
 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33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
 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34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
 치 아니하고
 35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
 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
 게 추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37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
 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
 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38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
 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
 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10

- 1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 3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 6 다니엘, 긴돈, 바룩,
-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8 마아시아, 빌개,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흠, 하사바,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4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샷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앓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앓두아,
 22 블라다,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습,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25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이였느니라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
 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
 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29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좃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
 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좃아 우리 주 여호
 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30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
 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
 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지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
 식과 초하루와 항상 드리는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
 게 하였으되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단
 전에 드리게 하였으되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단
 에 사르게 하였으되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 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으되
 36 또 우리의 만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
 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
 게 추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
 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
 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
 분 일부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곧 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섬기는데 돌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리지 아니하리라

11

1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
 비 뽑아 십분의 일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
 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2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
 여 복을 빌었느니라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분성
 본 기업을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
 러하니

4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웃시야의 아들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5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6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사백 육십 팔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8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이니 도합이 구백 이십 팔명이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웃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12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팔백 이십 이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13 또 그 형제의 족장 된 자니 도합이 이백 사십 이명이요 또 아맛새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새의 손자요, 므실레웃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14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일백 이십 팔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15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16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니 저는 기도할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18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이백 팔십 사명이었느
 니라
 19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일백 칠십
 이명이며
 20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21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
 이 되었느니라
 22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형손 맛다냐의 증손 하
 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
 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
 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랴트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벤벨렛과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하며
 30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
 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힌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31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벤엘
 과, 그 촌에 거하며
 32 아나돗과, 뇨과, 아나냐와
 33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4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5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
 느니라

12

- 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 2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 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 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 5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 6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 7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 8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냐니 이 맛다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 9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 10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아다를 낳았고
- 11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앓두아를 낳았느니라
- 12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 13 에스라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한이요
- 14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 15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웃 족속에는 헬개요
- 16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 17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 18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 19 요야립 족속에는 맛드내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요
- 20 살래 족속에는 갈래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21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
 었느니라
 22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
 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때에 제사
 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24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 맛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
 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공간을 파수하였나니
 26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
 니라
 27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
 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
 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29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웁 들에서 모여 왔으니 이 노
 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
 뒀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성 위로 향렬을 지
 어가게 하는데 한 떼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33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35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
 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36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
 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 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총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 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39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40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1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43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말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에게 돌밭을 곧을 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하와 것과 십일소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45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좃차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을 것이며
 47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

1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 오지 못하리니

2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 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 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

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20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

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
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
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
를 기억하옵소서
30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
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
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